

선포

Empire State는 종교 및 영적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단히 소중한 기여를 하는 개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특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추기경단으로 승격된 경사를 맞이하여 뉴욕 대주교인 Timothy Cardinal Dolan의 생애와 봉사에 경의를 표하는 전세계의 카톨릭 신자들과 함께 동참하며,

1950년 2월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Robert 및 Shirley Radcliffe Dolan 부부의 다섯 자녀 중 맏으로 출생한 Timothy Michael Dolan은 일찌기 성직에 소명을 인식하고 Saint Louis Preparatory Seminary와 Cardinal Glennon College에서 수학하여 그곳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Fr. Dolan은 1976년 6월 19일에 Edward Thomas O'Meara 대주교에 의해 서품을 받았으며 미주리주의 Shrewsbury와 Richmond Heights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그후 교육을 계속 받은 Fr. Dolan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미국 교회사 박사학위를 이수하고 미주리주로 돌아와 대주교 관할구의 신학 제도를 개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교육가이며 뛰어난 설교자인 Fr. Dolan은 그의 모교인 Kenrick-Glennon 신학교에 부학장으로 복귀하여 교회사를 가르치고 St. Louis University에서 신학교수에서 신학교수로 재직할 때 가장 인기 좋은 교수였으며, 그리고

교회의 직분에서 승격을 거듭한 Fr. Dolan은 1994년에 Msgr. Dolan 및 로마에 있는 Pontifical North American College의 학장이 되었으며; 그의 서품 25주년에 Msgr. Dolan은 John Paul II 교황에 의해 St. Louis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여름에 Dolan 주교는 밀워키의 10번째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은퇴하는 Edward Cardinal Egan을 승계하기 위해 뉴욕의 10번째 대주교로 Benedict XVI의 임명을 받기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리고

뉴욕 대주교 관할구는 2009년 4월 15일 수요일에 St. Patrick 성당에서 Dolan 대주교를 환영하였으며, 친근감 있고, 사교적이며, 현실적인 성격과 교회사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대단히 존중하는 Dolan 대주교는 짧은 시간 내에 뉴욕 신도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신도들은 지난 1월에 Benedict XVI 교황이 Dolan 대주교의 추기경단 임명을 발표한 것을 알고 기뻐하였으며 그리고

2012년 2월 18일의 추기경회의에서 Benedict XVI 교황은 Timothy Michael Dolan을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Timothy Michael Dolan을 추기경단에 승격시켰으며, Dolan 추기경은 또한 Nostra Signora di Guadalupe a Monte Mario의 수석 사제라는 직분을 받았으며 그는 현재 United States Conference of Bishops의 회장이며 그의 기타 직책으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재단이사과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New Evangelization, 및 Pontifical Council for Social Communications의 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그의 지출 줄 모르는 에너지와 전염성이 있는 열성으로 알려져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Dolan 추기경의 영향력은 뉴욕의 차세대 카톨릭교에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이에 2012년 3월 12-18일을 Empire State에서

TIMOTHY CARDINAL DOLAN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이천십이년 3월 12일

Albany 시의 주 의회 의사당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증에

의거하여.

□□□

비서실장